

투데이 칼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만들기

옛날 그리스 아테네 근교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강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나그네를 집으로 유인해 자기 집 철재 침대에 묶어놓고 그 침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람을 침대에 맞게 늘리거나 죽게 하거나 또는 너무 커서 침대가 작으면 침대에 맞춘다고 다리나 머리를 잘라 죽이는 무시무시한 범죄자였다.

수 십 년동안 얼마나 많은 약행을 저질렀을까.

결국은 그도 법의 심판이 아닌 자기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당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자기 침대에 묶여 자기가 했던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자신의 원칙이나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대로 사용하는 잘못된 태도에 대한 교훈을 준다.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크기를 조절하는 비밀장치가 있어 어느 누구도 그 침대에서 예외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오늘날 무심코 관행처럼 시행했던 복지 제도나 정책들이 장애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근본적인 소외와 차



정 현 영  
고창군 장애인복지팀장

별과 배제를 가져다주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가 아니었나 반성해 본다.

과거 장애인 제도나 정책의 방향은 문제의 일인을 장애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함으로써 비장애인에게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대상이 장애인인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제도나 정책들을 장애인 중심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즉, 차이를 차별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장애인 개인의 잘못, 무능함이다.

부도덕함이 아니라 비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는 사회제도나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에 있다는 것이다.

고창군은 지역 장애인들이 불편함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한 물리적·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40억원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해 매일 200여명의 장애인들이 5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2억5000만원의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도 제작중이다.

또 장애인 직업적응시설 신축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고용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신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의 퇴소를 지원 할 '체험홈'과 시설 입소 희망자를 위한 '체험홈'을 마련해왔다.

본인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인프라 구축과 함께 튼튼바퀴처럼 맞물려 함께 가야할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이다.

올해부터는 매일 순차적으로 소규모의 밀착형 장애 이해교육과 다양한 장애체험 교육이 진행된다.

그 중심에 고통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Barrier Free' 운동이 있다.

도로나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들을 제거한 환경을 말한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프로크루스테스 그 침대에 같은 단단한 편견의 장벽이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독자제언

인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국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집체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인권의 중요성 및 인권강화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경찰관 개개인이 지위가 높다하여 이른바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계급을 막론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며 협담 또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형사사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업소나 교통위반 단속을 함에 있다. 우리 경찰은 국민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하거나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 속에 쉽사리 편입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귀와 입

과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별 것도 아닌 걸로 신고해서 미안합니다. 반늦게 고생하시네요"라고 말하는 국민이 있고, 반대로 "신고한지가 언젠데 이제 오냐,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똑바로 하지 못해"라고 비꼬아서 말하는 국민이 있다.

"장애인이 차별받아선 안 돼", '사회적 힘이 약한 여성이 차별받고 있어', '얼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다고 차별하면 안 돼',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 등 인권에 대한 문제는 사회 곳곳에 있다.

시대가 변할수록 그때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진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다. 다시 한 번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철호 원안경찰서 형문감사관실 경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노트르담 화재 진압하는 파리 소방관



15일(현지시간) 불길에 쏘는 노트르담에서 한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약 400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성직자들의 용기로 상당수의 유물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앞에서 이끌어야

전북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됐대서 하는 말만은 아니다. 현 정부는 뭔가 다르리라 기대했는데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 기대가 거듭 목도 되고 있는데 기만하 있을 일이 아니다. 보도되는 뉴스를 보고 듣자니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를 안할 수 없다. 역대 정부들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왜 그럴까.그것은 전북도가 너무 앞선한 까닭이다.지금 전북도에게 할 말이 있다.제뫼 쟁기기에 보통 이상의 힘을 쏟아야겠다.

이같은 말은 지역의 낙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다. 그래도 지금은 요구의 성격이 다르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 확대와 관련해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용분부에 대한 수도권의 흔들기를 심상하게 볼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3금융도시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산상공회의소가 격렬하게 반발했는데 그 또한 보통 일이 아니다.전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 발전 포부를 밝혔지만 그게 그뿐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새만금을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 성취를 위해서 힘차게 선도해야겠다. 미래 발전을 말한다 해도 추진이 없다면 무가치하니까 말이다.도지사들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민의 열망에 고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들 목도 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전북도가 새만금에 전기차와 자율차를 생산하는 미래 산업 기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성취를 위해서 극성스러움이 있어야겠다. 새만금개발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업무 협약을 맺은 6개 기관들에게만 맡겨두지 말라는 당부이다.

전북도는 말의 무게를 인식해야 한다. 전북도 스스로 제뫼 찾기를 강조해 말했었거니와 다른 광역시도를 따라잡고 말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도가 이번에 맺은 협약은 아직 상상 단계일 뿐이다.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지금부터 실력 발휘를 위한 힘의 축적이 있어야

교통 인프라 확충 발언 강도 높아야

도내 물류 대동맥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국도며 지방도며 두루 그렇다는데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전주시내의 도로만 보아도 균열이지고 움푹 패인 구간이 적지 않으니 다른 도로들이야 오죽하랴 싶었다. 도로 노후화의 현실은 무심코 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재 시설 개량 대상의 도로는 국도가 여덟 구간이고 지방도는 아홉 구간이다. 재정 형편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는 말만 되뇌일 게 아니다. 전북도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서둘러야겠다.

전북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영호남 SOC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세월을 기다려선 안된다.

오랜 시일이 지났는데 여태 후속 움직임이 없으니 이상하다. 전북도는 예전에 호기롭게 말한 적이 있다. 2030년까지 도로 건설과 철도 건설과 항만 건설 등 113건의 사업을 위해 23조 9천여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는 것이다. 그같은 구상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를 만큼 원대했다.

2030년까지 멀리 내다본 것도 그렸고 투입 액수가 거의 24조원에 육박한다는 것도 그랬다. 그러나 그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맹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조심스럽게 지적할 것이 있다. 아쉬운 쪽은 우리 쪽이 영남쪽이 아니다. 사실이 그렇다.

그러므로 그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앞서서 나가야 한다. 도민을 상대로 청사진을 그려보여 주는 것도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이다.

현 정부의 국토부가 전일 정부의 국토부하고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래도 추구할 것은 추구해야 한다. 행여 전일 정부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 류의 고속도로 건설이 전국 대비 1.3%에 불과했으니 말이다. 그리고 무주와 대구간 건설건은 언급조차 없음에도 경북과 경남권은 고속도로 건설 건이 무려 일곱 건이었으니 말이다.

전북도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세계 캠퍼리 대회 성공 프로젝트는 정부를 향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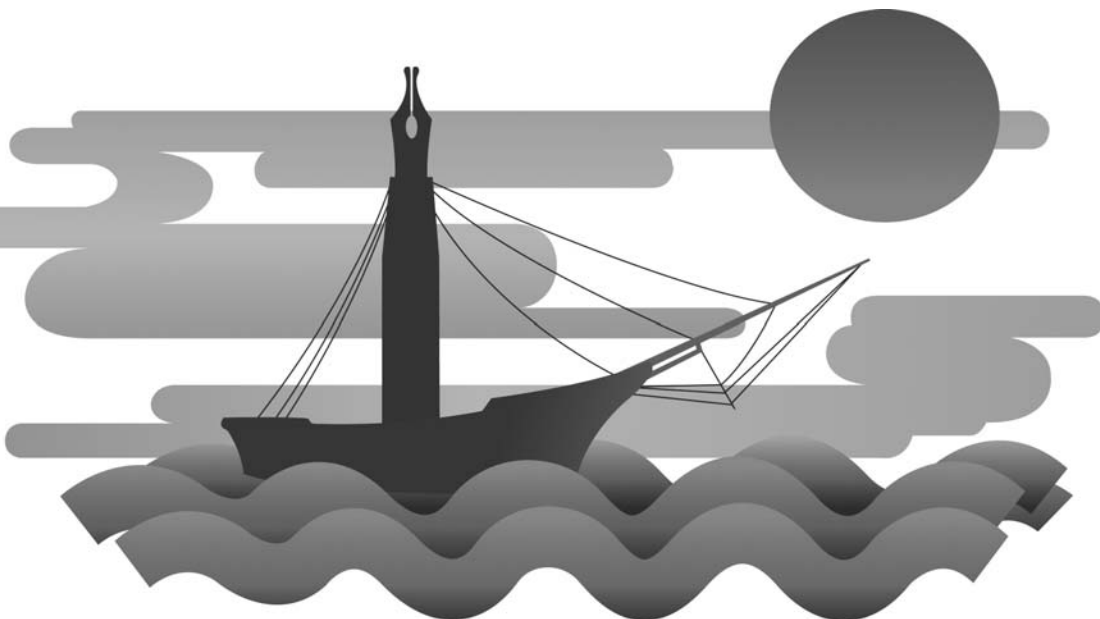
도내 도로들의 노후화가 오래됐는데 기만하 있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도로 확충과 관련해 그 책임이 막중하다. 정부가 이쪽의 요구에 눈길을 돌리도록 전북도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해야 되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